

사우디 국왕자문회의 연설

존경하는 살레 빈 호마이드 의장, 그리고 국왕자문회의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환대에 감사드리며, 우리 국민이 전하는 따뜻한 우정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슬람의 발상지이자 13억 무슬림의 대표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자문회의 의사당에 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의 대표인 의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사우디는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중동·이슬람 문화를 세계사의 한 축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이곳에서 탄생한 이슬람은 동서양을 융합한 새로운 문명으로 발전했으며, 유럽에 과학과 의학·수학을 전파하는 등 세계 문명의 진보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건국의 아버지 압둘 아지즈 국왕을 비롯한 선왕들의 눈부신 업적과 압둘라 국왕의 탁월한 지도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압둘라 국왕께서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정치 안정과 경제 발전, 국민복지 증진, 그리고 중동지역의 평화를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으로도 중동의 중심국가로 더 큰 번영을 이뤄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두 나라는 광대한 아시아 대륙의 동쪽과 서쪽 끝머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래 전부터 실크로드를 통해 교류해 왔습니다.

1300년 전, 한국의 고승 혜초는 중동을 다녀오면서 ‘왕과 백성들은 음식을 먹는 데도 귀천을 가리지 않는다.’는 기록을 남겼고, 도자기와 음식 등 다양한 우리 문화 속에서 교류의 자취를 볼 수 있습니다. ‘코리아’라는 이름도 아랍 상인을 통해 서방에 전해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소주라는 술도 아랍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1962년 수교 이후 정치·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우방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세 번째 수출시장이며,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한국의 첫 번째 원유 공급국이자 건설시장이 될 정도로 서로에게 꼭 필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양국 간 실질협력 확대의 결정적 계기는 역시 1970년대의 건설협력일 것입니다. 파이잘 국왕 시절 젓다-메카 고속도로, 주베일 항만 등 이곳의 건설 현장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흘린 구슬땀이 양국 간 우정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한국의 경제 성장에도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는 십여 개의 이슬람 성원과 수만 명에 이르는 무슬림 신자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이슬람 공동체는 다원화된 한국사회의 존경받는 일원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최근 들어 이슬람과 중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슬람 공동체가 성장하는 데에는 사우디의 역할이 큼니다. 한국의 이

슬람 지도자들은 사우디의 '메디나 대학'이나 '킹 사우드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사우디의 국비 유학생들도 한국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들은 양국의 훌륭한 가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저는 압둘라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협력 확대와 함께 동북아시아와 중동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다.

저와 압둘라 국왕은 이들 지역의 갈등과 대립은 결코 숙명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도전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평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또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동북아시아와 중동에서는 평화 구축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큰 걸림돌이었던 북핵문제가 6자회담을 통해 해결의 가닥이 잡혔습니다. 지난 2월 13일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협의 등은 그 의미가 매우 큼니다. 북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동북아시아에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열어 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6자회담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이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합의가 반드시 이행되어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우디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지지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이슬람과 아랍권의 핵심 국가로서 역내 평화 구축을 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과거 레바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타이프 협정'을 주도했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풀어 가는 과정에서도 큰 몫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리야드에서 개최되는 아랍연맹정상회의도 사우디의 주도적인 역할로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확신합니다.

최근 이라크 상황과 이란 핵문제 등은 국제사회에 많은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동 문제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특히 사우디 지도자들의 지혜와 경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중동의 국제 정치적, 경제적 위상을 주목하면서 우리나라와 중동 간의 전방위적 우호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21세기 한·중동 미래협력 구상'을 밝히고자 합니다.

중동지역은 21세기 들어서도 막대한 에너지 공급 능력과 구매력으로 세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동지역은 원유 도입의 82%, 건설·플랜트 수주의 63%, 교역량의 12%를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중동지역이 분쟁과 갈등을 하루속히 해소하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협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협력 확대의 틀로써 한국과 GCC 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GCC FTA가 체결될 경우 양측 모두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생각하며, 올해 안에 GCC 측과 협상 개시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은 중동의 탈석유 산업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인적 자원 개발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동의 발전 전략에 도움이 된다면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기꺼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셋째, 한국과 중동 국가 간의 활발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언론·종교계·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문화가 새롭게 조명되고 양 지역 국민 간의 상호이해가 제고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넷째, 기존의 연례 한·중동 협력포럼을 확대·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포럼을 양 지역 정부의 고위 인사와 기업인들이 참석하여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실질적 교류의 장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저의 이와 같은 미래협력 구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사우디아라비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두 나라 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의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친선협회를 중심으로 양국 의회 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나라의 먼 조상들이 친구였듯이 우리도 새로운 동반자로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숭한 도전을 극복해 온 지혜와 용기로 우리 두 나라가 21세기 공동번영의 미래를 향해 굳게 손잡고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슈크란 좌질란(대단히 감사합니다).”